



편집자의 말

『아시아리뷰』 3권 1호 발간에 붙여

안청시 (편집위원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들어가며

이번 호 『아시아리뷰』는 특별주제를 다룬 3편의 기획 논문과 지역연구의 쟁점에 대한 논문 3편 등 총 6편의 연구논문과 2편의 서평으로 구성되었다.

6편의 연구논문 중 미야지마 히로시 교수의 “한·일 양국의 역사를 다시 본다: 동아시아사의 입장에서”는 미야지마 교수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연례 학술행사인 ‘아시아포럼’(2013. 4. 18)에서 발표한 초고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한 것이다. 인홍 교수의 “글로벌 배경 하에서 중국 영화산업 발전 추세”와 이시타 사에코 교수의 “파퐁러 문화의 수집·공유·소비: ‘파퐁러 문화 뮤지엄’에 대한 고찰” 두 논문은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중점연구단 연구주제 ‘동아시아 대중문화 소비의 새로운 흐름’(2014. 3. 29)에 대한 국제컨퍼런스에서 발표된 것을 수정·보완·번역하여 게재하였다.

지역연구의 현황과 쟁점을 다룬 세 연구논문 중 김형준·전재성 두 교수의 “한국의 인도네시아 연구 동향: 외적 팽창의 지속, 내적 분리의 심화”는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편집위원회 주관, 2013년도 제1차 국내학술발표회(2013. 5. 22)에 제출·발표된 연구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그리고 이한우 교수의 “한국의 베트남 연구”는 2012년 후반기의 아시아연구소 국내학술발표회(2012. 11. 15)에서 발표된 초고 논문을 저자가 다시 수정·보완하여 이번 호에 제출해 준 것이다. 한건수 교수의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 주제별 현황과 방법론적 성찰” 역시 2013년 연구소 주관 국내학술회의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이 글에서는 3권 1호에 게재된 6편의 연구논문들을 요약하여 서술함으로써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 글로 편집자의 말에 대신하기로 한다.

역사와 문화를 보는 눈 - 기획논문에 대해

권두에 실린 미야지마 히로시(宮嶋博史) 교수의 글은 올해로 정년을 맞이한 필자가 오랜 기간 동안 한국사와 일본사 연구에 정진해 온 자신의 학문생활을 되돌아보면서 최근에 펴낸 두 권의 저서 『미야지마 히로시, 나의 한국사 공부: 한국사의 새로운 이해를 찾아서』와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에 대하여 그 집필 배경과 주요 내용들을 간추려 짚어가면서, 앞으로 동아시아사의 재정립을 위해 남겨진 연구과제들에 대하여 그가 품어온 소회와 제안들을 담고 있다. 『나의 한국사 공부』는 필자의 말대로 한국사의 주류적 견해인 ‘내재적 발전론’을 ‘비판’하고 ‘새로운 한국사 이해를 제시’하려는 논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의 역사관을 비판한다』는 일본 역사학계의 주류적 일본사관을 비판하고 탈아입구(脫亞入歐)적 일본사 이해와 유학에 대한 근거 없는 부정적인 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한 논고들이 실려 있다. 미야지마 교수에 따르면 한국사에 대한 내재적 발전론과 일본 역사학계에서 일본 근대사를 서구형 발전경로와 근접한 모습으로 그려내는 역사의 틀은 둘 다 공히 서구식 발전 모델을 빌려 한국사와 일본사를 이해하려 한다¹는 점에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이 두 책은 한·일 양국 역사학계에 풍미해 온 ‘주류적 견해들을’ 넘어 동아시아의 역사상을 새로이 찾아 나서자는 제안과 노력을 모은 논고들을 담아내고 있다.

미야지마 교수는 도쿄대학교 교수직 정년을 몇 해 남겨두고 조기 퇴임한 후 성균관대학교(2002년)로 옮겨 일찍부터 그가 바라왔던 바대로 동아시아사의 틀

¹ 여기서 일본식 역사 이해는 일본 근대사를 한국이나 중국 등의 역사와는 구분하여 고유성을 갖는 ‘역사적으로 특수한’ 경로로 보는 시각을 말하는데, 서구처럼 봉건체제를 거쳐 서구와 비슷한(일명 보편적인) 역사 발전 경로를 거친 일본은 스스로 근대화와 발전을 기할 수 있었지만, 봉건제를 경험하지 못한 한국과 중국은 자력으로 근대화할 능력이 없는 체제로서 외부의 힘으로 근대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통설로 해석된다.

안에서 한국사를 연구하는 데 매진해 온 학자로 주목받아 왔다. 그의 논지는 동아시아의 한·중·일 3국 역사가 갖는 연속성과 종교·문화적 유사성이란 맥락에서 한·중·일의 역사를 ‘다시 보고(revisit)’, ‘비교, 분석’하여 새로운 역사상(歷史像)을 정립해 나가자는 제안을 담고 있다. 이는 『아시아리뷰』가 창간호에 이어 지난 호²에서도 거듭 강조해 온 아시아 연구의 ‘정체성 회복’과 아시아 ‘다시 보기(revisit)’ 운동과도 일맥상통하는 일이다. 미야지마 교수의 논지에 대해서는 비판적 논의들과 반대 의견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호 미야지마 교수의 논문 게재를 계기로 아시아 연구와 동아시아 역사상에 대하여 발견적 담론이 활성화되고 도전적 가설과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들이 이어지기를 바란다.

인홍 교수의 논문 “글로벌 배경 하에서 중국 영화산업 발전 추세”는 중국 영화 산업의 발전 과제와 문제점들을 분석하여 아시아 대중문화의 비교 연구에 유익한 단초를 제공해 준다. 전 세계 영화시장을 돌아볼 때, 2012년 현재, 세계 영화 박스오피스 증가율은 7%에 불과하나 중국의 경우는 최근 10년 동안 연속 30% 이상 증가한 가운데 시장 규모가 27억 달러가 넘어 세계 제2의 영화시장으로 부상했다. 향후 5년간 중국 영화산업의 규모는 스크린 수 2만 5,000개, 연 박스 오피스 매출이 450억 위안에 달하여 기존의 두 배로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지속적으로 커지는 영화시장은 당연히 수준 높은 영화의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아울러, 증가일로에 있는 할리우드 영화의 수입량은 중국 영화 발전에 자극이 되는 동시에 경쟁력을 위협하는 요소로도 작용할 것으로 저자는 내다본다. 중국 영화시장의 할리우드 영화에 대한 의존도는 아시아 주변국가인 일본이나 한국에 비해 훨씬 높다.

중국 영화는 여전히 고대 무협 장르에 상업성을 결합한 오락형 블록버스터에 머물고 있어 예술적 크리에이티브와 기술적 시도가 부족하다. 코미디나 공포물 외에 비중 있는 장르의 영화가 거의 생산되지 않으며 3D, 대형 스크린을 활용한 하이테크 영화의 수도 적고 질도 떨어진다. 2D 영화도 전체 제작이나 기술 면에서 국제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중저예산 영화(예술영화)의 경우

² 『아시아리뷰』 2권 2호, 통권 4호, 2012: 1-11 참조.

휴머니즘, 사회, 현실, 역사에 대한 인식이 미흡하고, 성찰이 수준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표현력 또한 부족해서 예술영화를 대상으로 하는 국제영화제 등에서 주목받지 못하고 있다.

중국 영화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부 관리 부분과 사회 각 방면에서 예술의 크리에이티브에 대한 존중이 요구된다. 다양한 소재를 발굴하도록 독려 또는 지원하고, 이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빠른 시일 내에 영화등급제를 도입해서 효율적으로 미성년자를 보호한다는 전제 하에, 영화의 소재와 표현의 영역을 더욱 넓혀가야 한다. 지속적으로 산업을 개방하는 정책을 통해 영화 제작사를 지원하고, 특히 민영 영화 제작사가 기업 간, 국가 간 효율적인 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좀 더 크고 강하고 질이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화 전문 서비스 기업, 기술적 기업을 육성해 중국 영화의 관리 운영 수준과 영화산업의 질적 수준을 전면 제고해야 한다. 아울러 디지털화, 글로벌화, 스페셜화에 적합한 영화 제작, 창작, 관리 전문 인력을 육성해 중국 영화의 발전을 위한 지적, 인적 토대를 구축할 것을 이 논문은 권고한다.

일본의 사례를 연구한 이시타 사에코(石田佐恵子) 교수는 “파퓰러 문화의 수집·공유·소비: ‘파퓰러 문화 뮤지엄’에 관한 고찰”이란 제하에 일본의 문화 뮤지엄을 중심으로 대중문화를 다루었다. 일본의 뮤지엄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계속 증가해 왔으며, 그 정점은 2008년이였다. 현재 일본 전국에 있는 뮤지엄 수는 7,000 내지 8,000여 개로 추정된다. 1990년대 이후 일본에는 정통문화를 전시하는 ‘성당(聖堂)’으로서의 박물관이나 미술관뿐 아니라 대중성을 띤 파퓰러 문화 또는 하위문화를 수집하여 전시하는 새로운 유형의 뮤지엄이 눈에 띈다. 이 글은 이 새로운 유형의 뮤지엄을 ‘파퓰러 문화 뮤지엄’으로 규정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뮤지엄 문화를 비교 연구하기 위한 분석 틀과 연구 의의를 제시하려는 시도를 담고 있다.

‘파퓰러 문화 뮤지엄’의 성립에는 크게 두 가지 방향성이 작용한다고 필자는 보고 있다. 하나는 고급문화나 문화유산을 전시해 왔던 뮤지엄이 ‘파퓰러 문화’를 추가적으로 전시하고 관람객의 체험 또한 ‘파퓰러 문화’가 되어가는 현상이

다. 또 다른 하나는 ‘파퓰러 문화’를 수집하여 전시하는 시설과 장소가 ‘성지(聖地)’로서의 뮤지엄을 새롭게 형성해 나가는 현상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만화, 드라마, 영화, 음악, 화장 등의 파퓰러 문화가 그 영향력을 확장해 가는 양태는 장르별로나 나라별로 큰 차이가 있다. 또한 파퓰러 문화 뮤지엄이 지역공동체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관광산업과는 어떻게 결합하고 있는지는 각각의 장르가 글로벌 시장에서 지니는 경쟁력에 따라 달라진다. 일본, 한국, 기타 지역에 있는 파퓰러 문화 뮤지엄 역시 상이한 특성과 차이를 표출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국가에서 ‘소프트 파워(soft power)’를 구성하는 주인공은 어떤 장르의 파퓰러 문화인가? 이들은 해당 국가의 국가적 담론과 연계하여 어떻게 뮤지엄으로 구성되는가? 이 글은 이상의 문제들을 던지면서 앞으로 동아시아 내에서 파퓰러 문화의 수집과 공유 그리고 소비 양태에 대해 비교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흥미로운 연구 주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중국 영화산업과 일본의 파퓰러 뮤지엄에 대한 소개 및 사례연구를 다룬 앞의 두 연구는 아시아 국가들의 소프트 파워를 구성하는 대중문화 자원들에 대한 국가별, 장르별 산업생산과 공공정책, 소비행태 등을 비교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 유익한 참고자료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지역연구의 쟁점과 현황’을 주제로 한 세 논문

최근 한국학계의 지역연구는 양적인 증가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도 다양해지면서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별, 나라별, 분야별로 보다 균형 있는 기반 구축이나 연구 축적이 취약하고, 질적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갈 길이 멀다는 인식 하에 『아시아리뷰』는 지난 2년에 걸쳐 지역연구의 쟁점과 현황을 중점적으로 다루어 왔다. 이번 호에서는 개별 국가 연구사로 관심을 돌려 보았다. 마침 올하는 한·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 한·베트남 수교 20주년 되는 해이다. 이에 이번 호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두 동남아 국가에 대한 나라 중심의 연구사 자료들을 수집·분석·평가해 보기로 했다. 아울러 아프리카 지역연구

논문을 한 편 게재하고 이를 통해 아프리카 연구의 주제별 현황을 점검해 보고 방법론적인 성찰을 통해 지역연구의 다양성과 연구 기반 확장을 모색해 보고자 했다.

김형준, 전제성 두 교수는 “한국의 인도네시아 연구 동향: 외적 팽창의 지속, 내적 분리의 심화”라는 제하의 공저 논문에서 먼저 한국 내의 인도네시아 연구 자들에 대한 현황과 증가 추세 집계, 석·박사 논문들과 저서, 저자들의 통계와 분야별 분포, 학술지 증가 추세, 학술지의 교차 인용도와 연구자들 간의 상호 인용 빈도 등 각종 계량자료들에 대한 미시분석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한국 내 인도네시아 지역연구는 근 반세기의 연구사를 축적하며, 특히 지난 20여 년간 논문 수가 급속 증가하는 발전을 이루었다. 전문 연구자들의 수적 측면에서도 인도네시아 연구 인력은 국내 지역연구의 선도그룹으로 인정받을 만큼 꾸준한 양적 팽창을 기록하고, 연구 분야도 다양해져서 외적으로는 크게 팽창했음이 재확인되었다.

그러나 필자들이 다른 논문과 저자들을 인용하는 빈도가 별로 증가하지 못했고, 사회과학계 연구 실적물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데 반하여 인문학과 이공계 연구가 희소하며, 분야별 불균형과 학제 간, 학과 간의 분리 현상이 심화된 현상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특히 한국외대 출신과 비외대 출신 간의 이른바 ‘칸막이 현상’이 두드러지게 보이는 점도 그러하거니와 연구자와 연구 실적의 양적 확장에 더해 보다 균형 있고 질적으로 세련된 연구 발전 경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필요성과 당면 과제에 대해서도 기대와 주문이 이어졌다. 더불어 후속 연구 세대 양성을 지원하고, 분야 간 벽을 트며, 주제 영역에 대한 학제적 연구의 심화 노력과 함께, 시민의 교양 교육에도 이바지할 수 있도록 대중성 있는 단행본 집필 활동에 더 주력해야 한다는 권고도 제기되었다.

이한우 교수의 “한국의 베트남 연구”는 1960년대 중반 베트남 파병에 대한 정치적 관심으로 인해 한때 증가했으나, 1975년 베트남 통일의 과도기 동안 관심과 연구 실적이 주춤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1980년대 초부터 학계의 베트남 연구 관심이 다시 시작되어, 특히 1986년 말 베트남의 ‘도이머이(Đổi mới/翽翼, 쇄

신' 개혁 정책 채택과 1992년 한국-베트남 간 국교 수립을 계기로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급속 증대하여 이른바, 베트남 '붐'으로 이어졌다. 그 이후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확대됨에 따라서 무역과 경제 분야 등 실용적 연구에 대한 요구도 줄곧 늘어나 베트남 연구에 대한 학계의 관심 증대와 활발한 연구 활동을 추동했다. 한편, 한국인의 베트남학에 대한 관심은 일면 베트남의 통일 과정과 사회통합 경험들을 조명하여 한반도에서도 적용 가능한 정치적 교훈과 시사점을 찾으려 한 데에도 기인되었던 것으로 이 교수는 풀이한다.

1990년대 후반에서 2000년대 전반 10여 년간 베트남 연구 '붐'으로 베트남 전공자들이 다수 배출되었는 바, 현재 이들은 베트남 연구의 제2세대로 연구의 중추를 이루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 간에 경제협력이 심화되고 인적 교류가 팽창함에 따라서 연구 인력에 대한 수요도 확대되어 베트남어와 베트남학을 주 전공으로 연구하는 전문 인력도 늘어나고, 특히, 사회 및 경제·경영 분야의 인력 수요도 늘어났다. 이처럼 한국의 지역연구는, 베트남의 경우처럼 변화하는 사회·경제 상황 요인들과 지역학 전공자에 대한 인력 수요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다른 한편, 인도네시아의 경우와 같이, 베트남 연구에서도 그간의 양적 성장을 바탕으로 이제부터는 질적 성장을 도모해 나가는 일이 긴요하다는 점을 이 교수는 베트남학의 지속 발전과 성숙화의 과제라고 강조한다.

한건수 교수는 “한국의 아프리카 지역연구: 주제별 현황과 방법론적 성찰”에서 1983년 한국외국어대학교의 스와힐리어과 창립을 계기로 하여 아프리카의 언어와 문화를 연구하는 전문 연구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지적했다. 1990년 중반 이후 사회과학 분야를 비롯하여 다른 분과 학문에도 아프리카를 전문적으로 연구·교수하는 학자들이 출현하였으며, 2000년대에 들어 아프리카 지역연구 저변이 양적으로 크게 성장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프리카 지역연구는 내용 면에서 외국 학자들의 연구를 소개하는 초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스와힐리어 전공자들과 다른 학문 분과 연구자들 사이에 학문적 소통과 경쟁이 부족하여 지역연구로서의 학문적 입지를 튼튼하게 구축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한건수 교수는 아프리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문제의식을 개발하고 연구의 질

적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방법론적 성찰과 이론적 정치함을 강화시켜 다양한 분야의 연구 수준을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또한 지역연구의 개별 분과 학문 연구들 간에 학문적 소통을 확대하고 학제 간 벽을 터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학의 관련 학과들을 지원하되 보다 철저한 검증을 통해 양적 팽창 위주가 아닌 질적 향상을 추구해야 하며, 단기간 내에 급속한 실적을 기대하는 졸속주의도 피해야 함을 한 교수는 지적한다. 학문 후속 세대 양성을 위해 우수한 학생이 확보되어 있는 주요 대학에서 아프리카 연구와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특히 아프리카 연구자들로 하여금 보다 많은 현지 연구 경험을 공유하고 쌓아갈 수 있도록 현장 교육과 현지 연구에 대한 지원책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북리뷰

이번 호에 소개되는 전문 서평 편에는 두 책을 다루기로 했다. 한상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의 편저서 *Divided Nations and Transitional Justice: What Germany, Japan and South Korea Can Teach the World*(Sang-Jin Han, ed., Paradigm Publishers, 2012)의 서평은 박태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그리고 구민교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의 저서 *Island Disputes and Maritime Regime Building in East Asia: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Min Gyo Koo, Springer, 2010)의 서평은 이석우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필해 주었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와 편집위원회를 대신하여 『아시아리뷰』 제3권 제1호가 발간되는 과정에서 훌륭한 논문과 서평을 기고해주신 집필자 분들,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논문 심사를 해주신 분들 모두에게 감사 말씀을 드린다. 『아시아리뷰』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바라마지 않는다.

2013년 6월